



가정용 의료기기 보편화 된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평소의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예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있다.

특히 성인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크게 늘면서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위한 의료기기의 보급이 자연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업을 수익성 좋은 전망 있는 신종사업으로 부상시켰으며 보다 정교하고 손쉬운 의료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5~6년전만 해도 병원등 의료기관에나 있을 법한 의료기기가 이제는 우리집 안방에 놓여 굳이 병원을 가지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을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혈압이나 혈당측정을 할 수 있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평소의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예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있다.

특히 성인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크게 늘면서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위한 의료기기의 보급이 자연히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5~6년전만 해도 병원등 의료기관에나 있을 법한 의료기기가 이제는 우리집 안방에 놓여 굳이 병원을 가지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을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는 건강측정용에서부터 자외선 등 적외선찜질기 등과 같은 특수 치료용까지 대략 30~40여종에 이르는 의료기기는 평소 건강체크에 관심있었던 일반인은 물론 자주 병원을 가야하는 환자들의 번거로움을 없애줘 일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가정용 의료기기의 보급이 크게 늘게된 이유로는 우선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경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질병이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대 비결이라는 인식확산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제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적인 분위기 형성이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종로에 위치한 K의료기의 K씨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반 가정용의료기기를 찾는 사람들이 현저

하게 늘고있으며 특히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가정용 의료기기 보급 확산

현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정용의료기기는 대부분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소형의 건강측정기와 물리치료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편셋, 가위, 반창고 등이 담긴 구급용 키트는 가정내 상비용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체에서 부담없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판촉용 선물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가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안에 비상시를 위한 구급상자로 비치하는 예가 많다.

이외에 판매고가 높은 인기상품이 찜질기류. 전기코드만 꽂으면 온도조절되는 전자식 찜질기부터 뜨거운 물을 부어 재래식으로 쓸 수 있는 고무제품등 기능에 따라 다양하다. 찜질기는 신경통이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비교적 다른의료기에 비해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

제품종류는 3천원가격의 재래식부터 5만원 정도의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게 되는 자동 한증 찜질기까지가 시판중이다. 심지어 인체에 진동을 주는 적외선 저주파를 흘려 신경안정과 근육강화를 돕는 저주파치료기도 가정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들 특수치료기의 경우는 사용자 임의대로 선택 사용하면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안마기는 진동식이 1만원, 전기를 이용한 제품은 5~6만원선이면 살 수 있다. 발바닥 경혈을 눌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기구는 10~20여만원 선이고 스탬플

러는 7천~8천원, 건강매트는 1만원 정도이다.

지난 추석의 경우 연로한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위한 감사선물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가정용 전자혈압계.

전문의료기상은 물론 일반 판매점들조차 건강에 관련한 제품들만 따로 모아 판매코너를 만들 만큼 명절이나 연말이면 이들 제품들은 다른 상품을 제치고 주력 판매상품으로 분류 판매고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각종 건강식품과 함께 측정이 간편한 전자혈압계는 부담없이 선물할 수 있는 가정용상비 의료기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자혈압계는 건전지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박대를 감고 압력을 넣어주기만 하면 혈압과 맥박이 자동으로 측정된다. 최근에는 혈압기에도 인공피지 기능이 부착돼 버튼 하나만 눌러 줌으로써 모든 동작이 완료되는 등 최첨단 제품까지 등장, 더욱 사용이 간편해지고 있다. 혈압기의 경우는 회사마다 제품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보통 10여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체온계나 체중계도 가정내 비치용으로 선호되는 제품으로 사람들이 흔히 찾는다. 대략 7천원에서 1만원선인 전자식 디지털 체온계는 기존의 수은체온계와 달리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수은이 몸속에 흘러들어가는 등의 위험성이 없어 호평받고 있다.

체중계도 대략 2만원선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어린이가 있는 집이나 체중조절이 필요한 가정 필수품으로 추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디자인이 점차 세련되고 칼라풀해지면서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들 가정용 의료기들을 구입할 때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 제품이 과연 믿을만한 제품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관계기관이 인정하거나 추천하는 상품이라면 일단 안심해도 좋을 듯. 그러나 대부분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사기전에 반드시 작동여부를 검사해보는게 지혜롭다. 또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확인받아 만일의 경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정용 혈당측정기도 판매량이 늘고있는 경우. 보통 15만원에서 30만원선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나와있는 제품 모두가 수입품으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다.

이외에도 최근 붐이 일고있는 수지침세트나 족집기등 한방용 의료기들도 일반 사용이 보편화돼 가고 있다.

30여종의 다양한 제품이 시판돼

이들 가정용 의료기기들을 구입할 때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 제품이 과연 믿을만한 제품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관계기관이 인정하거나 추천하는 상품이라면 일단 안심해도 좋을 듯. 그러나 대부분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사기전에 반드시 작동여부를 검사해보는게 지혜롭다. 또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확인받아 만일의 경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상들이 밀집해있는 중

로3~5가에 나가보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차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단지 싼가격만의 제품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경로를 거친 정품인지 사후서비스는 완벽한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제품을 엄선해서 샀다고 해서 안심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작동여부와 정확도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

한편 가정용 의료기기의 보급 확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먼저 가정용 의료기기의 보급은 건강관리를 위한 과학화된 기기의 보편화라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관리의 기반이 마련돼 국민 건강증진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두드러진 긍정적 평가외에 염려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가정용 의료기기의 보급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가정용 의료기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 한층 손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이 나쁜 제품이 이러한 시류를 타고 범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각 의료기기의 품질관리가 관건이며 지금이라도 행정당국이 품질관리를 강화시켜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현재 의료기상들의 유통질서는 공정거래면에서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매장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하다는 경우가 허다하며 소위 덤핑이나 할인율을 크게 해서 호객하

는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좀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쉽다. 의료기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싸게 드리겠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불신을 낳게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처럼 공정가격을 통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일반소비자들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규격제품을 선별, 불량제품, 부정품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소비자로서의 의식개혁과 책임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는 소비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권리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민)